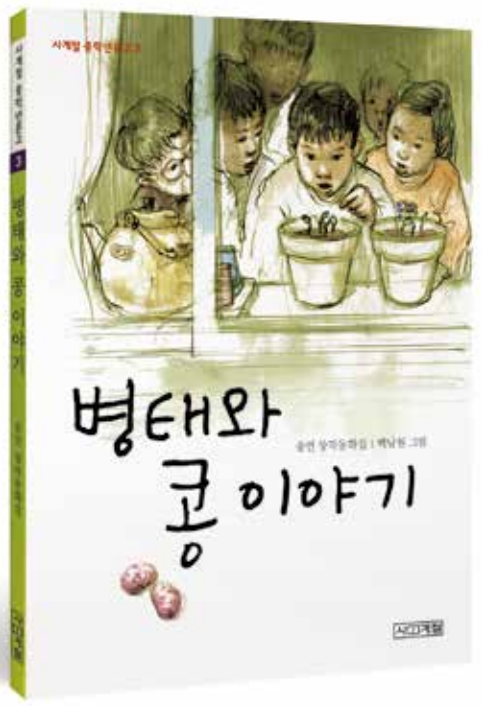
병태와 콩 이야기

송언 지음 | 백남원 그림



3, 4학년 중심 학년군 **3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수록**

국어: 인물, 사건,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.
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갖는다.
도덕: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.

1, 2학년

국어: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.
바른생활: 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한다.
생명을 존중하며 동식물을 보호한다.

동화작가 송언의 창작 동화집으로 다섯 편의 단편 동화가 담겨 있다. 표제작 「병태와 콩 이야기」처럼 훈훈한 이야기도 있지만, 제비집을 허물어 버리는 집 주인과 이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새봄이네 이야기, 중풍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바라보는 하늘이 이야기 등 어둡고 가슴 저리는 이야기도 있다.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아이들은 한 뼘 더 자라날 것이다.

학습 목표

송언 작가의 창작 동화는 저·중학년 아이들이 자기들 이야기처럼 감정이입하며 읽기 좋습니다. 특히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썩 모범생은 아니지만 빙그레 웃지 않을 수 없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인데 책을 읽는 또래 아이들도 그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나 다른 친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『병태와 콩 이야기』는 중학년 아이들이 인물의 성격을 쉽게 파악하고 인물과 사건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 문학 공부를 시작하기에 적당한 책입니다. 특히 학교나 집과 같은 아이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 아이들이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.

1.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
2. 인물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.
3.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주변의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.
4.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작가의 또 다른 책을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.

독전 활동

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

송언 작가 소개하기

- 이 책을 쓴 송언 작가를 소개해 줍니다. 초등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아이들과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. 특히 장난꾸러기 남자아이들의 마음을 아주 실감나게 잘 표현했습니다. 우리 교실에도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닮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.
- 송언 작가의 다른 책 『잘한다 오광명』, 『멋지다 썩은 떡』, 『슬픈 종 소리』, 『아, 발해』 등도 잠깐 보여 줍니다.

초강력 접착제 놀이(짝과 함께 달리기)

- 교실이나 운동장 어디서든 좋습니다.
- 오늘 읽을 책의 등장인물 이름과 짝을 미리 알아봅시다.
- 「제비야 제비야」 - 제비와 새봄이, 「줄무늬다람쥐」 - 다람쥐와 하늘이, 「병태와 콩 이야기」 - 콩과 병태, 「오늘 재수 똥 튀겼네」 - 아빠와 덕호, 「할아버지 새」 - 할아버지 새와 봉구

● 열 명씩 나누어 각 인물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줍니다.

● 쪽지에 제비가 적혀 있으면 새봄이를 찾아 짝을 이룹니다. 마찬가지로 다람쥐는 하늘이를, 병태는 콩을, 아빠는 덕호를, 할아버지 새는 봉구를 찾아 짝을 이룹니다.

● 짝과 함께 출발점에 섭니다.

● 교과서나 공책을 얼굴과 얼굴 사이에 끼웁니다. 반환점을 돌아올 때까지 얼굴 사이에 있는 물건을 절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.

● 책을 읽고 이야기 속에서 함께 뛴 짝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알아봅시다.

▶ 책의 내용과 관련된 활동이라기보다 동화집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미리 알고 즐거운 놀이로 책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활동입니다.

독후 활동 1

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

책 속 그림 중에 송언 작가와 꼭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. 누굴까요?

- 「병태와 콩 이야기」에 그려진 선생님 그림이 송언 작가와 꼭 닮았습니다.
- 작가의 사진을 책 읽기 전 작가 소개 때 미리 보여 줘도 상관없습니다.

▶ 역시 내용 이해에 중요한 질문이라기보다 책을 읽은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건과 인물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

책을 읽기 전 했던 초강력 접착제 놀이에서 어떤 인물을 맡았나요?

- 자기가 골랐던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설명합니다.
- 제비, 다람쥐, 콩, 할아버지 새 등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.

▶ 이 책은 '글을 읽고 인물의 성격 알기'나 '인물과 사건과의 관계 알기'와 같은 국어 수업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.

독후 활동 2

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

인터뷰 놀이 하기

- 이야기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들을 찾아봅니다.

「제비야 제비야」 - 처음 집주인이나 옆방 아줌마, 「줄무늬다람쥐」 - 하늘이 아빠, 「병태와 콩 이야기」 - 유리, 「오늘 재수 똥 튀겼네」 - 안경 쓰고 청바지 입은 누나, 「할아버지 새」 - 봉구 엄마

● 인물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특징이 있으며, 그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서 사건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.

● 술래를 한 사람 정합니다.

● 술래는 잠깐 밖에 나갑니다.

●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 속의 인물 한 사람을 적어 보여 줍니다. 예를 들어 「제비야 제비야」의 '옆방 아줌마'라고 적습니다. 아이들에게 옆방 아줌마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인물이었는지 떠올리게 하고 설명합니다.

● 술래를 옆방 아줌마라고 생각하고,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.

● 질문할 때는 절대 이야기의 제목과 옆방 아줌마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

● 술래를 들어오게 해서 아이들이 하는 질문을 잘 듣고, 자기가 이야기 속의 어떤 인물을 맡았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설명합니다.

● 한 명씩 질문합니다.

예) 보름 정도 집을 비우셨는데 어디를 다녀오셨나요?

● 아직 누군지 모른다면 술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. 다시 질문합니다.

예)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제비집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?

예) 제비집을 부술 때 제비에게 미안하지 않았나요?

- 짐작이 되면 짐작되는 인물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고 정답을 말합니다.
- 이런 식으로 술래가 아닌 아이들이 차례대로 질문을 하고, 술래는 질문을 잘 듣고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맞히면 됩니다.
- 선생님은 아이들이 하는 질문을 잘 기억했다가 좋은 질문이 나오면 술래가 맞히고 난 다음 다시 그 질문을 해 봅니다.
- 술래를 바꾸어 같은 방식으로 인터뷰 놀이를 합니다.

▶ 아이들이 인물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질문하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기자처럼 인터뷰 놀이를 하듯이 하면 좋겠습니다. 질문을 잘 듣고 자기가 맡은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하므로, 질문할 때 너무 직접적이지 않되 지나치게 우회적으로 질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▶ 처음 할 때는 감을 못 잡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. 그때는 선생님이 이야기의 제목을 힌트로 줘도 됩니다. 하지만 보통은 질문의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 어려워하기도 금방 알아맞히기도 합니다.

▶ 좋은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칭찬을 해 줍니다.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의 내용입니다.

작가의 다른 책 읽어 보기

- 도서관에서 송언 작가의 다른 책을 빌려서 읽고 소감을 말해 봅시다.